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제목 : **오늘의 율법주의**

성경: 마태복음 26장 59-68절

Tag:

59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公會)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60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언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61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
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63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 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
게 말하라

6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
르노니 이 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
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65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 모독 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
모독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67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
닥으로 때리며

68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나 하더라 (마26:59-68)

오늘 말씀에 보면, 거짓이 승리하는 듯한 광명이 묘사되었다.

분명히 예수님은 진실을 말씀하시고, 대제사장과 거짓 증인들은 거
짓에 대해 당당하다.

이들이 당당한 이유는 자신이 지키고 싶은 기득권에 대한 열정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기득권에 목을 매지 말고, 진리에 목을 매야 한다.

대제사장 무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예수를 죽일 꼬투리를 잡고자 한다.

그러나 대제사장 무리들을 속시원하게 해 주는 증인은 나서지 않는다.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삼일만에 세우리라’는 말을 하신 것을 들었다는 증인이 나선다.

-어떻게 보면 이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을 허물라는 발언은 예언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실제적으로 성전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70년에 허물어진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발언의 의미는 성전된 자기의 몸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과 제 3일에 부활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신성시 하던 성전을 모독한 발언으로 받아들여져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몰아갈 수 있게 되어서 기뻐한다.

-물론 한편으로는 예수님은 당시의 성전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였다.

-성전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속죄의 제사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의미가 있기에 그 점은 인정하셨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의 성전은 율법주의의 본산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제사장의 후예들인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제사가 장악되었고,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성경 해석이 장악되어 있었다.(율법주의 생산자들) 성전을 중심으로 매일 제사가 드려졌으며, 친 로마 세력인 정치인들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있어서 성전은 정치적인 지배를 상징하고 있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친로마인 이 세그룹이 성전을 중심으로 가나안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셈이다.

-한편으로 로마의 정치적 지배에 대해 불만을 품고 반란을 꿈꾸는 무리들이 있었으니, 이들 중 몇몇에 의해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

로 추대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정작 로마인은 정치적 주권을 내어 줄 마음이 없었고, 사두개인은 성전을 통한 성전세를 포기할 마음이 없었고, 바리새인은 성경해석에 대한 주권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바리새인들은 결코 정신적 영적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혈혈 단신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에서부터 돌풍을 일으켰다. 아무도 예수님처럼 진리를 선포한 자가 없었고, 기적을 베푸는 자가 없었고, 지혜롭게 대적을 물리친 자가 없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 의해서 일락 메시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는 강력한 체제 전복자로 여겨졌다.

*어떻게 보면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었다. 오히려 거짓이 당시의 세계를 장악하고 있었으며, 성전을 거점으로 율법주의를 확장 시키고, 군중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의 등장으로 거짓에 의존하는 율법주의는 무너지게 된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된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다. 항상 율법주의는 그럴듯한 거짓을 바탕으로 지배체제를 구축한다. 뻔뻔한 거짓말을 그럴듯한 논리로 치장한 뒤 흐트러짐 없이 설파하면 사람들은 쉽게 믿는다.

-딱히 반박할 만한 말도 떠오르지 않고, 만약 반박했을 경우 생기게 되는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끔찍한 일이다.

-오늘날에도 그럴듯한 거짓말은 정치인들의 사냥감이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거짓 증인들을 물색하느라 정신이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똑같은 현상이 재현된다.

-얼마전 한동훈 장관을 중심으로 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이슈가

되었다. 어떤 거짓 증언에 혈안이 된 의원이 자기 변명식으로 늘어놓은 거짓말쟁이 켈리스트의 말을 믿고 도발하였다. 그런데 며칠전 그것이 거짓인 것이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되고 말았다.

-몇년 전에도 장자연 술자리 의혹 관련 제보자가 나타나 자신이 장자연 리스트를 보았다고 거짓말하면서 정치권이 난장판이 되었다. 거짓 증언을 한 윤 아무개 여인은 경찰로부터 호텔비를 지원받고, 신변을 지켜줄 경호원 채용을 위한 비용도 1억 여원을 모금했으며, 여가부로부터 금전적 지원도 받았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거짓말로 드러났고 그녀는 캐나다로 도망갔으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잡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거짓 증언에 목을 매는 것일까? 무슨 나라를 꿈꾸고 있으며, 무슨 유익을 꿈꾸고 있을까?

-과거 사두개인이 바리새인이 꿈꾸던 것과 비슷한 야망 때문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헛된 이념을 현실에 실현시키고 자기는 그런답시고 국비를 낭비할 권력을 쥐고 싶을 뿐이다.

-오늘의 사두개인들에게 성전은 국회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책은 주체사상이다.

-신 공산주의는 여전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적을 제거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거짓말이든 협잡이든, 억지든, 감성팔이든, 온갖 핑계를 가져다 쓰며 정권 전복과 정권 탈환을 위해서 올인한다.

-하도 많은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그 거짓말 어록이 들통나 버렸다. 언론까지는 장악을 했는데, SNS까지 장악하는데는 한계가 드러났고, 댓글조작까지는 가능했는데, 원하는 댓가를 지불하지 않는 바람에 들통이 나 버렸다.

-중국 사람들은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공산당에게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하고 현지에서는 민주화 바람이 불고 있다고 한다. 중국의 젊은 이들은 vpn을 이용해서 국가에서 차단한 사이트에 우회로 접근해서 세계 뉴스를 들여다 본다고 한다.

-진실은 쉽게 땅 속에 묻힌다. 스스로 땅을 파고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없으면 진실은 잊혀지고 민다.

-반면 거짓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뻔뻔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감성팔이하고, 들켜도 변명하고, 대중이 현혹할 만한 이야기를 재생산한다. 왜 거짓이 잘 팔리는가? 선정적이고, 선동적이고, 대중이 듣고 싶어하는 말과 표현을 사용하는 법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거짓은 그것이 없으면 결코 주목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짓은 온갖 잔머리를 굴러가면서 대중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다.

-이념으로 가스라이팅 당하지 않으려는 시민은 진실과 진리를 찾는 데 필요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앓된다. 학교에 급식층이 있다면, 도시에는 거짓말층이 있다. 하루 하루 거짓말을 믿으면서 거짓말이 좌표적인 사람을 증오하는 힘으로 살아간다.

-미워하는 힘으로, 비난하고 비아냥 거리는 재미에 빠져 사는 시민이 될 것인가, 진실과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의 좁은 길로 가는 것을 기뻐하는 시민이 될 것인가?

-거짓이 선동하는데 현혹될 것인가, 겸손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며 진리되신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거짓의 산에 함께 올라타서 이것이 대세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며,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길에서 벗어나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진리의 편에 서며,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그 주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할 것인가?

-거짓으로 범벅이 된 이념 율법주의는 결국 사회를 마비 시킬 것이다.

-한때는 성결했지만, 성령의 생명력이 사라져버린 복음주의 율법주의는 과거의 열정과 그 불씨만 뒤적거리며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율법주의는 이념 율법주의다. 거짓이 거대한 산이 되어 거짓을 삶의 기준으로, 법의 기준으로 삼고, 속이는 기술로 여론을 만들고, 공정하지 않은 표준을 세우고, 그것으로 억지를 부리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에 굳건히 서고, 무엇이 거짓인지 왜 그것이 거짓인지, 무슨 목적으로 거짓을 전파하는지 그 저의를 파악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키우고,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선택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며, 선한 영향력으로 성령의 촛불이 되어 오실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리라.

아멘.

<찬양예배>

제목 : 아모스 2장 성경: 아모스 성경공부

Tag:

1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재를 만들었음이라

2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3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5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6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7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8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9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10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어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11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13 보라 곡식 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 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14 빨리 달음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15 활을 가진 자도 쉴 수 없으며 말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16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암2:1-16)

아모스. 유대 출신 이스라엘 선지자. 직업 뿔나무 재배업.
-시기;여로보암 2세 재임기(793-753년)인 760-755년 경.

1장;주변국들의 죄와 심판

2장;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와 심판

3장;죄의 형벌에 대한 마땅함

6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7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4장;회개치 않는 이스라엘

1, 4, 9절

5장 6-10절

6장

12-13절

7장

10절 이하

8장

4-6절

11절

9장 멸망과 회복

9절

10절 -12절

15절